

◁ 書 評 ▷

商 周 史

尹 乃 鉉 著

서 울 민 음 사

1984年 399面

이 책은 저자인 尹乃鉉교수가 중국고대사에 관한 단행본으로 「商王朝史의 研究」 「中國의 原始時代」을 이어 세째번으로 내놓은 저서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중국 고대의 여명기였던 殷왕조와 周왕조의 형성과 조직 통치조직 발전과 팽창과정 사회와 경제적 변화와 발전 중국 고전문화의 창달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西周 멸망이후에 전개된 春秋戰國시대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 후에 형성된 秦漢제국을 잉태출산 시켰던 역사적 요인을 부각시키고 있다.

먼저 이 책의 구성을 보면 商왕국 周왕국 春秋시대 戰國시대의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는 왕조를 창업했던 부족의 기원 국가조직과 통치제도 사회조직과 경제제도 그리고 문화와 사상의 순으로 엮어졌다. 그리고 춘추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양분하여 양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징과 변화과정을 상술하고 있다. 그리고 마즈막으로는 방대한 참고문헌 색인 상주사 연표 중국음의 한글표기 대조표가 부록으로 첨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중국고대사 특히 殷周 및 춘추전국시대의 전개과

정을 이해하려는 독자에게는 더 없이 편리한 시대사로 생각되며 특히 방대한 참고문헌의 소개는 대학원생 및 중국고대사를 더 깊이 공부하려는 학도에게 많은 편리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에 대한 몇가지의 評을 필자 나름대로 지적해 본다면 이 책의 중국 人名 地名 都名에 관한 표기법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의 人名 地名 都名 등의 漢字으로 쓰인 명칭에 가로를 열고 일일이 중국어 발음으로 중국 명칭을 부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자가 이전에 쓴 「中國의 原始時代」에서도 반복된 것이다. 중국의 人名 地名 都名 등에 대한 정확한 발음소개는 독자에게 여러가지로 많은 편리점과 도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책을 읽어가는데 상당한 불편과 거부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문장속에서 한글과 섞여쓰는 한자는 우리말로 읽었던 습관에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우리는 한글과 혼용되어 있는 한자를 읽는데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글과 한자의 혼용이 오래 시행되어 왔고 우리는 거기에 습관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작스런 중국어 발음의 삽입으로 독서에 오히려 어색한 감을주고 있다. 만약에 저자가 독자에게 반드시 중국의 原音을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중국에 관한 英文書의 경우처럼 책 말미 부록에 소개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자는 중국어의 原音을 소개하는데 우리나라 표기법으로 하였기 때문에 간혹 중국의 原音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보이는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중국의 主音符號 또는 영문의 웨이드식 방법으로 표기하였으면 더 정확히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역시 책 말미에 소개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本書에서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戰國時代에 관한 취급문제이다. 이 책의 서명은 「商周史」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商왕조와 周왕조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적 개념으로 봐서 戰國時代는 周왕조

의 역사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우리가 周의 역사를 西周時代, 東周時代 이렇게 구분하고 또 이를 兩周時代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戰國時代를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戰國時代를 春漫時代로 넣을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에 戰國時代를 春秋戰國時代라는 구분 혹은 개념을 떠나서 취급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저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결국 戰國時代를 商周史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書名에 戰國時代를 포용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방법이 강구되거나 또는 머리말에 이에 대한 저자의 견해가 밝혀졌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필자가 戰國時代에 관심을 갖는 필자 나름대로의 이유는 戰國時代가 중국고대사의 시대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고대사를 일견해 보면 혈연적 씨족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殷·周의 고대왕조의 성립과 해체 그리고 春秋戰國時代를 거쳐 군현제를 기반으로 한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였던 秦漢의 고대제국의 성립과 해체의 과정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春秋時代는 殷·周 시대의 씨족적 제도와 유제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급속도로 해체 붕괴되는 시대였으며 반면에 戰國時代는 秦漢의 고대제국 성립의 기본조건이었던 전제군주의 형성 관료제의 성립과 군현제의 진행 자작의 소농민층의 형성 士人 계층의 형성 등의 정치 경제 사회상의 개혁과 발전이 이미 이룩되어 있었으며 오직 무력적 통일만이 不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에 春秋時代와 戰國時代를 동일시 할 수 없고 따라서 戰國時代를 단순히 春秋時代의 연속이란 의미에서 기술할 것이 아니라 戰國時代의 시대적 특성 위에서 취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河南省 師縣 二里頭에 관한 저자의 해석이다. 1958-64년 사이에 발굴이 시작된 二里頭的 유적과 유

물은 고고학계의 세계적 관심을 끌었는데 그것은 二里頭의 유물과 유적의 연구결과가 중국의 전설상의 왕조인 夏왕조의 實在性을 밝혀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고고학계의 연구추세를 살펴 보면 二里頭에서 출토된 유물의 문화적 성격과 유적지의 형태를 위요하고 격렬한 논쟁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二里頭의 유적과 유물이 여러 시기의 문화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도 「中國의 原始時代」에서 밝힌바와 같이 二里頭의 문화를 殷문화의 전기단계로 보는 견해 1기와 2기는 夏문화에 속하고 3기와 4기는 殷문화로 보는 견해 그리고 二里頭 문화의 전체를 夏文化로 보는 견해로 현재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저자의 서술에 의하면 二里頭의 문화는 현재 문자에 의한 기록이 출토되지 않아 결정적인 증빙이 안 될 뿐 夏문화로 단정하고 있는 중국 고고학계의 의견에 동의하는 저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학계에서 夏왕조의 實在性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중국의 전통관념 속에서 夏왕조는 三代의 첫왕조였고 최초의天命을 받은 受命의 왕조였으며 유가를 중심한 중국의 전통적 정치사상 형성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장구한 역사 속에서 夏왕조는 실제하였던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擬古學派의 등장과 고고학적 증거물의 불비로 일부 중국학계 및 서구학계에서는 夏왕조의 實在性을 부인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활발해진 고고학계의 발굴성과와 문헌자료를 통한 夏왕조의 역사성에 대한 추적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다시 夏왕조의 實在性을 주장하는 의견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이같은 과정에서 二里頭의 문화적 성격에 관한 고고학계의 연구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二里頭의 문화적 성격구명에는 몇갈래의 의견으로 대립되어 있는데 필자는 고고학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일 二里頭의 유물과 유적이 夏왕조 문화의 소산이라고 한다

면 400여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夏왕조의 존재를 二里頭의 유적지와 유물만으로 확인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夏왕조의 實在性を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二里頭 형태의 유물과 유적이 몇개 더 발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또 언급하기를 현재 중국 역사학계의 경향은 문자에 의한 기록이 출토되지 않았을 뿐 二里頭의 문화를 夏文化의 소산으로 추정하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과연 夏왕조가 문자를 소유하였는지 의문이 잔다. 그 이유는 현재 중국의 최고 문자로 간주되는 甲骨文의 기원과 발전과정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夏왕조가 신석기 말기에서 청동기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夏왕조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부연한다면 만일 二里頭의 유물과 유적을 夏문화의 소산으로 간주한다면 二里頭에서 출토된 鍬, 鏃, 鈴 등의 극히 유치하고 조잡한 그러나 청동제의 출토물에 대한 해석도 도외시 할 수 없을 것이다. 二里頭에서 발견된 청동제품은 그 기술수준과 형태면에서 殷 전기문화의 인상을 더 풍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二里頭의 문화가 夏왕조의 문화라고 한다면 殷 전기문화는 아직 해명되지 않는 상황인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殷의 전기문화가 해명되어야 夏문화의 해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二里頭의 문화적 성격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戴內清 교수의 “二里頭의 문화의 상층은 洛達廟期(殷前期)에 가깝고 중층은 河南龍山文化의 요소를 지니고 하층은 河南龍山文化의 만기에 속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싶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夏왕조의 實在性에 대한 문제는 아직 논쟁중이라고 할 수 있고 필자의 생각으로는 좀 더 고고학적 증거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夏왕조의 實在性은 이와 같이 논쟁중이기 때문에 하단의 註를 통하여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보고와 학계의 연구성과가 소개 비교 되었으면 더 없이 좋았을 것

으로 생각된다.

西周시대의 서술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西周的 관제이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殷왕조를 멸하고 周왕조를 개국한 周왕실은 개국의 깃들로서 전국의 주요 요충지에 제후를 분봉 배치한 봉건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王畿지대를 周왕실의 직할지로 하여 직접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 통치의 기구로서 周天子 밑에 太師, 太傅, 太保의三公이 있어 大臣으로서 周天子를 보필하여 국정을 총괄하였다. 또한三公 밑에는 三事大夫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冏伯은 民事를 담당하는 지방관을 감시하는 임무를 가졌고 冏任은 정부에서 人事를 담당했으며 淮人是 司法을 관리하였다. 그리고 이 외에도 토지, 조세, 호적, 교육 등을 담당했던 司徒, 토목공사를 관장했던 司空, 군사를 관할했던 司馬 등의 諸官職이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서주시대의 자료인 金文, 詩經 尙書 등을 살펴보면 저자가 서술한 관직명칭이 수시로 보인다. 그리고 장구한 왕조수명을 누리 西周的 통치제도를 감안해보면 상당히 발달된 관료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관료제도에 관한 西周시대의 연구를 보면 西周시대의 자료에 관직명칭이 나타나고 있지만 西周시대의 전체 관료제도의 조직 및 각 직책의 기능과 권한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것 이외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三公의 제도도 저자가 언급한대로 太師, 太傅, 太保로 구성되었는지 아직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기타의 관직명칭도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지만 그 기능과 권한 성격 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진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저자의 西周시대의 관료제도에 대한 기술은 상당히 체계적인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자는 西周시대의 통치제도를 설명하는 가운데에 宗法制度가 周왕실에서 卿大夫를 통하여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적용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평민계층은 신석기 이래로 거주하여 온

피정복의 토착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토착민에까지 宗法制度가 확대 적용되었는지는 깊은 의문이 간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西周시대의 宗法制度는 지배체제의 실효와 지배계급간의 상호 결속과 연계를 강화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종친간의 上下分別 親疏有別 등을 규제하고 宗子導重 同族意識의 강조를 전제하는 혈연제도였다. 그리고 西周왕실은 이 혈연제도를 이용하여 周天子에서부터 卿大夫에 이르는 누층적인 宗法秩序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異姓諸侯는 同姓不婚의 법칙에 의하여 宗法秩序의 外延으로 확대 흡수함으로써 역시 혈연적으로 그 결속을 공고히 하였다. 따라서 西周왕조는 周室一家를 중심으로 확대된 一家의 天下로서 혈연적 유대에 의탁 하면서도 일면에서는 朝覲를 통해 철저한 군신관계를 형성했던 宗法的 封建國家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宗法制度는 일종의 지배방식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배씨족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또한 西周시대의 사회조직을 언급하는데 그 조직을 周王室國, 都鄙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는데 필자의 생각에는 서주사회는 天下, 國, 邑으로 형성되었으며 도시는 宋, 周, 國都, 邑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리고 이어서 저자는 邑과 邑의 관계는 계층화된 계급관계로 형성되었다고 하였는데 邑과 邑간의 계층적인 지배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邑을 장악했던 지배씨족의 상호 혈연관계를 좀 더 설명을 하였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자는 殷·周의 易姓革命을 설명하는데 天命의 기원과 그 정치적 의미를 약간 소홀히 한 것 같다. 易姓革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天命사상의 정치적 의미 및 天命사상에 입각한 周王室 통치의 正統性, 唯一性 등이 부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西周시대의 天下觀의 형성과 성격도 설명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는 春秋戰國時代를 서술하는데 春秋時代와 戰國時代로 양분하여 취급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여러 분야에서 春秋時代와 戰國時代는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저자의 이같은 시각과 서술방법에 깊은 수궁이 간다. 그러나 저자는 春秋時代의 시대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春秋시대는 제후의 자립 성장의 시대였지만 일면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상의 발전과 이로 야기된 새로운 사태의 전개속에서 西周시대의 성읍국가에서 주권 독립 영토국가에로 성장 발전하였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서주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조직과 제도의 기반이 되었던 혈연적 씨족제도가 春秋시대를 통하여 서서히 와해되고 戰國時代에는 전제군주를 정점으로 한 관료사회 자작의 소농민층 士人계층 상공인층의 성립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고 국가가 성립되었으며 이같은 사회경제의 변화와 발전은 秦漢제국 성립의 기본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春秋時代와 戰國時代는 성격상 완전히 다른 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같은 시대적 성격 설명에 미흡한 것 같다.

또한 春秋時代에는 수많은 쇄신과 개혁이, 각국에서 富國強兵을 위요하고 진행되었는데 이 중에서 특기할 수 있는 것은 私田 발생 私有制의 형성 稅制의 개혁 君臣關係의 형성과 관료제의 발달 및 군현제도의 형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저자는 이같은 개혁과 쇄신을 언급하고 있지만 개혁과 쇄신이 갖는 역사적 비중에 비교해 볼 때에 그 서술이 빈약한 것 같다. 실제적으로 春秋末期에 행해진 改革과 刷新이 후일의 秦漢제국 형성의 기반이 되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좀 더 그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고 강조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春秋戰國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면 혈연적 씨족제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殷·周시대에서 중앙집권적 관료제도의 秦漢제국시대에로 이행되었던 과도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과

도기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秦漢제국의 잉태출산을 위한 창조 개혁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서주시대의 宗法的 封建制度의 약화는 정치적으로는 영토 독립 주권국가였던 列國의 형성을 초래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혈연적 씨족공동체의 해체와 분해에서 야기된 자작의 소농민층의 형성 수공업 상업 발달에 의한 새로운 사회 경제체제의 형성과 전개를 진행시켰다. 그리고 列國간에 전개된 상호간의 공벌 병탄의 현상은 富國強兵을 위요하고 각국에서 개혁과 쇄신을 추진시켰으며 戰國시대의 七雅은 이같은 개혁을 완료하고 전제군주를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도를 그 지배근간으로 한 국가들이었다. 그리고 戰國七雅간의 대립 항쟁은 바로 중국통일전쟁이었으며 이 중에서 군주권 강화 중앙집권제의 실시 및 부국강병책에 가장 성공한 秦이 중국을 통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春秋戰國 시대에 관한 저자의 서술이 좀 더 역사적 흐름을 부상시키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기술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註에 관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방대한 자료를 참조하고 있으며 인용된 자료는 하단의 註를 통하여 전부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註 중에는 尙書, 詩經, 春秋左傳 등의 원사료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서술 중의 어떠한 경우에는 원사료가 내포하고 있는 이상으로 서술된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는듯 하다. 또한 이 책은 특정시대의 왕조의 역사에 관한 일종의 시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이 방대한 註를 하단에 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우리 학계의 추세를 살펴보면 연구서 아닌 일반 개설서에도 註를 통하여 많은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같은 경향이 고식적인 필자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느낌을 준다.

이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평소에 관심있는 몇 부분을 읽어보고

느낀 것을 적어보았다. 이 중에서 저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그릇된 견해를 피력하였는지 지극히 염려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자의 견해와는 다른 필자의 견해가 피력되기도 하였는데 역시 양해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시대사 또는 왕조사 하나 변변히 없는 우리 중국고대사 분야에 이같이 특징적인 왕조에 대한 집중적인 저서는 무엇보다도 반가운 사실이다. 殷, 周왕조에 대한 이 책의 체계적인 서술은 독자에게 중국고대사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돋굴 뿐만 아니라 방대한 자료와 문헌소개는 중국고대사를 공부하려는 대학생들에게 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도 연구가 일천한 중국고대사 분야에 각국의 연구성과를 수렴 망라한 이같은 저서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85. 2.

李 春 植